

말씀인가? 전통인가?

마가복음 7:1-9

영국 런던을 방문하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입에서부터 오래된 한 에피소드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맞아준 한 안내자가 있었답니다. 이 안내자는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안내자는 방문객들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이오아주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한 여 성도가 안내자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유명한 일화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에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던 안내자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지만, 지금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 에피소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인 유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동감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은 중요한 것이지만, 전통만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화된 믿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 절을 보면 “어느 날 바리새와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보러왔다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송되어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공회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을 조사해 보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과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바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Tradi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예를 들면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39 가지 정도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몇 mile 이상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또 몇 pound 이상의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된다, 또 불을 피우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본질적인 것, 즉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된다, 몇 mile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은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혹시 우리들이 전통이나 형식을 붙잡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이나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내면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 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결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는 음식을 먹는 규례가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정결규례는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이런 거룩과 정결에 대한 갈망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강조되어졌는데, 이것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칙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룩한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교회의 성찬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시간에 만약에 목사가 장갑을 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깨끗한 것이고 장갑을 끼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들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룩한 삶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가 안 씻는가라는 규칙이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 종교적인 전통이나 형식에 집착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6 절을 보면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외식이란 내용은 없고, 겉모습만을 강조하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보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다분히 이런 전통과 형식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대부분의 한국문화가 유교 문화의 영향아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교문화가 한국사회에 중요하게 기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유교문화의 역 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형식의 틀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용 없는 삶을 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사는데도 보다 큰 차를 사서 타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큰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은 텅텅 비어있는데, 남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빛을 내서라도 더 크고 좋은 것을 사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전통에 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통만을 붙들게 되면 과거 지향적인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옛날에는 이랬는데...’라고 말하게 됩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형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형식 자체를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전통과 형식이 가장 중요한 본질과 내용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빠진 오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이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이나 규칙이 진리로 둔갑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전통을 지켰다고, 어떤 규칙을 지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해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배의 경우,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설교시간에만 안 늦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 참 중요하니까 보통 여러 예배에서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고 예배를 끝내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했던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외웁니다. 그것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빨리 외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십자가를 교회 제단 앞에 걸어둡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린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없는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사람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씻었다고 ‘내가 손을 씻었으니 아 내가 거룩해졌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거룩한 예배, 정결한 삶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난센스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 자체를 진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14-16 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예수님은 정작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씻은 손이나 안 씻은 손이나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전통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요.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통으로 천주교 안에 뿌리내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걸리는 것이 바로 초대 교황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 전통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전통 때문에 성경을 바꾼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통이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생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통이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만 내세운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전통보다, 그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흥분하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40 대 남자가 60 대 어머니에게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 3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1. 늦게까지 잠자고 싶기 때문에.
2.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듣기 싫어서
3.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러자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반드시 교회가야 하는 이유 3 가지를 말했습니다.
1. 예배는 사람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에
2.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3. 너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기 쉽고 빛바랜 그림이나 오랜 과거의 유물처럼 되기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도 사라지고 재미없는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전통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형식만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나 형식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골동품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초창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통과 형식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다가 예루살렘교회는 꺾박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데살로니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생한 믿음이 살아 있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살아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교회가 세상의 꺾박을 이겼고, 그 어려운 꺾박의 시기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었습니다. 생생한 원색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통과 형식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으로 인해 감격해 하고, 그리고 그 분과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말씀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